

간재집 판본간에 보이는 이체자 양상 분석

원광대학교 한문번역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이경훈

1. 들어가는 글

간재(艮齋) 전우(田愚, 1841~1922)의 문집은 현재까지 문집 간행의 주체에 따라 『艮齋集』, 『艮齋私稿』, 『田愚全集』, 『艮齋先生文集』 등 다양한 표제 및 편차를 지니며 내용에서도 차이를 지닌 모습으로 각각 간행되었다. 이에 원광대학교 한문번역연구소에서는 ‘간재 전우의 문집 정본화’를 위해 DB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간재 전우의 문집을 정본화하려는 목적은 첫째, 현재 DB로 제공되고 있는 간재집과 ‘개인소장 미공개 문집’ 및 ‘아직 DB화되지 않은 문집’들을 교감하여 ‘정본(定本) 간재집(艮齋集)’을 제작하려는 것이다. 둘째, 정본 간재집의 DB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자들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셋째, 미공개 문집 및 DB화되지 않은 문집 등의 원자료를 최대한 하나로 정리하여 공개함으로써 간재학 연구의 발전과 미공개 자료의 학문적 개방에 관한 선도적 지표를 마련하려는 데에 있다.

간재집 정본화 작업에 있어서 자료의 전산화는 가장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수의 판본을 하나의 정본으로 만들 때 가장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텍스트 입력 작업에 있어서 판본 간에 존재하는 다른 내용을 정리하여 하나의 정본에 입력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내용이라 함은 문장의 첨삭이 다르거나, 문장의 편제가 다르거나, 글자가 다른 등의 異文을 말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異文 현상 중에서도 이체자의 존재 양상을 조사하여 정본화 작업에 기준을 마련하고 판본별 특징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체자는 정자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문자 사용 과정 중에서 쓰기 습관, 인지, 문자 변천의 흐름이 반영되어 발생 되는 문자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정자는 기준 자체로서 이체자를 정리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고, 정자를 선정해서 이체자를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의 비교기준 판본을 용동본으로 하여 진주본과 화도수정본이 동일한 위치에서 다른 글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이체자로 보았다. 특히 진주본의 경우는 정오표가 있기 때문에 정오표를 참조하여 오자에 해당되는 글자는 이체자의 범위 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정본화 작업 중에 나타나는 판본 간 이체자 자료를 정리하여, 정본을 위한 정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그리고, 이체자 자료를 양상별로 정리한 뒤, 분석을 통해 판본별 특징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이러한 이체자의 연구를 통해 간재집 정본화의 정자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해독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정을 정리하고자 하며, 나아가 당시의 문자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2. 간재 문집의 판본별 서지사항

간재 전우 문집 판본 간의 이체자 존재 양상 조사를 위해, 원광대학교 한문번역연구소가 진

행하는 정본화 작업의 대상 판본인 3종 판본의 서지사항을 살펴보았다. 하나는, 영인·출간되어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로 제공되는 龍洞本이 있다. 나머지 두 종은, 영인·출간은 되었지만 DB화되지 못한 晉州本과 華島手定本이 있다. 이 3종의 판본의 저본이 되는 稿本은 영인과 출간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계에 공유되지 않은 채로 개인 소장본 자료로 존재하고 있다.

稿本은 1902년 저자가 직접 文稿의 寫編에 참여했으며, 1906년 金駿榮으로 하여금 草稿를 수습하게 하여 文稿 36冊으로 刪定해 두었고, 1912년에 刪定해 두었던 文稿 36책에, 成璣運이 1906년 이후 수집해 둔 글을 합하여 成璣運, 權純命, 柳永善 등이 編輯하고 저자가 직접 25책으로 산정하여 ‘前稿’라고 하였다. 이것을 이듬해 宋炳華에게 보내어 교정과 산정을 부탁하였고, 1921년 權純命과 柳永善 등이 1913년 이후로 매년 모아 둔 저자의 草稿를 정리하였으며, 이를 저자가 직접 刪定한 뒤에 門人들로 하여금 나누어 繕寫하게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後稿’로서, 앞서의 前稿 25책과 합하면 모두 50여 책이었다. 저자가卒한 직후인 1922년 문인들이 1921년 7월부터 1922년 7월까지의 글을 모아 몇 책의 ‘再後稿’로 편차함으로써, 저자 문집의 稿本이 前稿, 後稿, 再後稿 등 모두 60여 책으로 완결되었다.

그러나, 간재 전우는 평소에 日帝의 許可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문집을 간행하지 말 것과 遺稿를 함부로 添削하지 말 것 등을 자손과 문인에게 당부하였다. 이에, 崔秉心, 金澤述 등은 일제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문집을 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간행의 방법을 포기하고, 우선 1922년에 정리된 稿本을 筆寫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1924년 필사를 완료했는데, 前稿 13책(前編 20권, 前編續 6권), 後稿 12책(後編 24권), 再後稿 3책(再後編 6권), 別稿 1책(別編 2권) 합 29책이고, 제목은 「艮齋私稿」라 하였다. 이 가운데 別稿는 排日에 관련된 글만을 별도로 모은 것이다. 이것을 華島手定本이라 한다.

화도수정본과는 별도로, 1925년 겨울에 저자의 문인이자 孫婿인 李仁渠가 저자의 長孫 田鎰孝와 함께 論山 龍洞에 있는 鳳陽精舍에 刊所를 설치하고, 淸道의 梁基韶 집에 보관되어 있던 별도의 稿本을 가져다 1926년 봄부터 독자적으로 문집의 간행에 착수하여, 1927년경 木板으로 간행을 완료하였다. 여기에는 宋毅燮과 李相珪, 李光珪 등이 刊役에 참여하였고, 平安道 朔州에서 木材를 실어 왔으며, 서울과 嶺南의 刻手 7, 8명이 투입되어 목판본으로 제작되었으며, 卷首題를 『艮齋先生文集』이라 하였다. 용동본은 前編 17권, 前編續 6권, 後編 22권, 後編續 7권, 別編, 私笥 합 52책으로 이루어졌다.

같은 해인 1925년에, 吳震泳, 權純命, 柳永善, 崔愿, 金楨鎬, 任坎宰, 河裕植, 鄭衡圭, 趙瀚奎, 田璣鎮 등은 晉州에 모여 刊行을 결의하고 晉陽印刷所에 또 다른 刊所를 설치하였다. 김정호가 掌財를 맡고 최원이 작업을 主幹하여, 1926년 鉛活字를 사용하여 인쇄를 완료하니, 이것이 바로 原編 43권, 續編 16권 합 30책의 『艮齋私稿』로서, 간재 문집의 初刊本이 완성되었다. 이것을 晉州本이라 한다.

(표-1) 3종 판본 서지사항

번호	1	2	3
판본명	華島手定本	龍洞本	晉州本
종류	筆寫本(원고영인본)	木版本	鉛活字本
시기	1922년 필사 착수 1924년 여름 필사 완료	1926년 간행 착수 1927년 간행 완료	1925년 10월 시작 1926년 10월 인쇄 완료
주관자	최병심(崔秉心)·김택술(金澤述)	이인구(李仁渠), 전일효(田鎰孝)	오진영(吳震泳), 권순명(권순명), 유영선(유영선), 최원(崔愿), 김정

			호(金楨鎬), 임감재(任坎宰), 하유식(河裕植), 정형규(鄭衡圭), 조한규(趙瀚奎), 전기진(田璣鎭)
刊所	계화도(界火島, 繼華島)	논산(論山) 용동(龍洞) 봉양정소(鳳陽精舍)	진주(晉州) 진양인쇄소(晉陽印刷所)
稿本	계화도에 수장된 간재 원고본 필사	청도의 양기소(梁基韶) 보관 稿本	
참여자		송의섭(宋毅燮)·이상규(李相珪)·이광규(李光珪)	
편차	전고 13책(전편 20권, 전편속 6권), 후고 12책(후편 24권), 재후고 3책(재후편 6권), 별고 1책(별편 2권-排日에 관련된 글 모음)	전편(前編) 17권, 전편속(前編續) 6권, 후편(後編) 22권, 후편속(後編續) 7권, 별편(別編) 1권, 사차(私笱) 1권	원편(原編) 43권과 속편(續編) 16권
편차 분류 기준	저작시기에 따라 편차 분류	중요도에 따라 편차 분류	중요도에 따라 편차 분류
책명	간재사고(良齋私稿) 필사본 전우전집(田愚全集)영인본 간재선생문집(良齋先生文集)영인본	간재선생문집(良齋先生文集)	간재사고(良齋私稿)
수량	29책	52책	31책
기타	1984년 김택술의 아들 김형관(金炯觀)이 아세아문화사(亞細亞文化社)를 통해 전우전집(田愚全集)으로 영인(影印). 습유(拾遺) 4권과 연보가 추가. 습유는 1940년에 김택술이 華島手定本에서 누락된 글과 산삭된 글을 모아 편찬한 것이고, 연보 또한 김택술이 편찬.	1925년 孫婿 李仁渠, 간재 長孫 田鎰孝이 論山 龍洞에 있는 鳳陽精舍에 刊所를 설치하고, 淸道의 梁基韶 집에 보관되어 있던 別도의 稿本을 가져다 1926년 문집 간행 착수. 宋毅燮과 李相珪, 李光珪 등이 刊役에 참여. 1927년경 木板 간행 완료. 현재 한국고전종합DB 제공. (간재집)	간재문집의 初刊本(1926년10월) 1984년 보경문화사(保景文化社)에서 晉州本을 저본으로하여 간재선생전집(良齋先生全集)을 영인 秋潭別集(秋潭別集) · 간재예설(良齋禮說) · 간재척독(良齋尺牘) 과 부록으로 연보(年譜)·가장(家狀)·관선록(觀善錄) 등을 추가.

3. 판본별 이체자 현황

본 연구는 3종 판본에 존재하는 이체자를 분류하여, 이체자 양상을 찾아낸 뒤, 이체자 양상이 의미하는 내용을 분석하여, 판본별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이체자 양상에 따른 특징이 판본별 특징을 규명해 낼 수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면의 제한을 고려하여 200개의 이체자를 연구 사례로 제한하였다. 3종 판본 간의 이체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되었다.

(표-2) 3종 판본 이체자 사례

순번	화도수정본 필사본	용동본 목판본	진주본 연활자본	순번	화도수정본 필사본	용동본 목판본	진주본 연활자본
1		歎	嘆	101	檢	檢	檢
2	靚	睹	靚	102	裡	裏	裏
3	它	佗	他	103	咏	詠	詠
4	胸	胷	胸	104	跡	迹	迹
5	牆	牆	牆	105	艸	草	草
6	諭	喻		106	他	佗	他
7	却	卻	却	107	併	并	竝

8		云	言	108	玩	翫	玩
9		喻	諭	109	它	佗	他
10	唯	惟	惟	110	却	卻	却
11	喻	諭	喻	111	深	深	深
12		并	並	112	往	往	往
13	俟	埃	俟	113	倬	掉	倬
14		盛	誠	114	群	群	羣
15		略	畧	115	絕	絕	絕
16	注	註		116	悖	諄	悖
17	脚	腳	脚	117	垓	臺	臺
18	群	羣	羣	118	亡	亡	亾
19	奈	柰		119	創	勑	創
20	置	寘	置	120	構	構	構
21	著	着	著	121	龜	麤	龜
22	曹	曹	曹	122	規	規	規
23	疏	疏	疏	123	斂	斂	斂
24	尔	爾	尔	124	脉	脈	脈
25	董	董	董	125	弔	弔	吊
26	解	懈	懈	126	丘	丘	丘
27	忖	忖	忖	127	垂	垂	垂
28	决	決	決	128	檢	檢	檢
29	他	佗	他	129	礪	勵	勵
30	螻	嗽	嗽	130	村	邨	村
31	置	寘	置	131	游	遊	
32	静	靜	靜	132	趁	趨	趨
33	原	源	原	133	厓	夷	夷
34	諭	喻	喻	134	皙	皙	晰
35	峰	峯	峰	135	駁	駁	駁
36	胡	湖	湖	136	悶	悶	悶
37	卽	卽	即	137	陣	陳	陣
38	却	卻	却	138	懷	懷	懷
39	冰	冰	冰	139	準	準	準
40	佗	他	他	140	工	功	工
41	它	他	它	141	誤	悞	誤
42	惟	唯	唯	142	醋	酢	醋
43	争	爭	爭	143	掩	揜	掩
44	婿	壻	壻	144	挖	拖	拖
45	辯	辨	辨	145	豕	塚	
46	索	實	實	146	讐	讎	
47	絕		絕	147	妙	妙	妙
48	兩	兩	兩	148	智	知	智
49	往		往	149	閼	關	關
50	悵		悵	150	概	槩	槩
51	乘		乘	151	墮	墜	墮
52	险		險	152	叅	參	
53	恠		怪	153	畧	略	略
54	斡		斡	154	翻	翻	翻
55	处		處	155	乏	𠂇	定
56	解		解	156	陰	𠂇	陰
57	澄		澄	157	你	你	爾
58	顛	顛	顛	158	雞	鷄	鷄
59	悖	諄	悖	159	像	象	象
60	他	佗	它	160	菴	菴	庵
61	决	決	決	161	覓	覓	覓
62	妙	妙	妙	162	澁	澁	澁
63	詭	詫	詫	163	莛	孜	莛
64	闕	闕	闕	164	脩	絡	絡
65	閼	閼	閼	165	鼓	鼓	鼓
66	奈	柰	奈	166	歎	嘆	嘆
67	愧	媿	愧	167	僞	爲	僞

68	準	準	準	168	覽	覽	覽
69	貌	兒	貌	169	第	悌	悌
70	輔	補	補	170	屮	居	居
71	他	佗	他	171	芦	蘆	蘆
72	関	關	關	172	硤	礙	硤
73	指	旨	指	173	洒	灑	灑
74	柰	奈	奈	174	係	繫	繫
75	注	註	注	175	笔	筆	筆
76	回	回	回	176	汚	汙	汙
77	腳	脚	脚	177		寢	寢
78	垓	臺	臺	178	瑣	瑣	瑣
79	求	救	救	179	尒	爾	爾
80	着	著	着	180	剩	膾	剩
81	叅	參	參	181	鑠	爍	爍
82	并	併	並	182	捨	舍	舍
83	鳩	鳩	𪗇	183	氷	冰	氷
84	它	佗	他	184	侯	候	候
85	他	佗	他	185	卻	却	却
86	個	個	個	186	閤	閤	閤
87	濶	闊	濶	187	亂	亂	乱
88	皈	歸	歸	188	煞	殺	煞
89	創	創	創	189	𩇛	𩇛	𩇛
90	橫	橫	橫	190	躬	躬	躬
91	間	間	閒	191	德	惠	惠
92	爭	爭	爭	192	劔	劍	劍
93	覆	復	復	193	靚	睹	睹
94	陳	陳	陳	194	拍	迫	拍
95	靜	靜	靜	195	階	階	階
96	疎	疎	疎	196	孫	遜	孫
97	諭	諭	諭	197	贊	贊	贊
98	胡	湖	湖	198	嘿	默	嘿
99	峰		峰	199	滾	滾	滾
100	憫	悶	憫	200			

이체자의 유형은 한자의 구성요소에 따라 필획, 편방, 글자가 다른 점이 무엇인지로 분류된다. 그리고 다음의 원인이 증가, 감소, 변화, 대체 등의 양상으로 귀결된다.

이체자 유형의 특징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구성요소의 측면에서 보면, 편방의 이체가 가장 많으며, 특히 편방 일부의 변형과 편방의 대체가 많다. (예: 愧媿, 靚睹, 牆牆, 諭諭, 埃俟, 注註, 咏詠) 둘째, 음의 관계가 없는 편방의 대체는 자형을 혼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檢檢, 構構, 妙妙, 橫橫) 셋째, 편방 일부의 변형은 서사 과정에서의 변이 혹은 초서나 행서의 해서화로 볼 수 있다. (예: 牆牆, 亡亾) 넷째, 동일한 글자에 여러 가지 이체가 존재하거나 이체자와 정자가 동시에 존재하기도 한다. (예: 它佗他) 다섯째, 이체자가 전승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정 글자에 대해 사람들이 이체를 쓰기 쉽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예: 尒爾) 여섯째, 정자나 이체자의 총획수 비교를 통해 대부분의 경우 획수가 감소하지만 늘어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德惠)

한자 이체자는 크게 構造가 변이된 이체자와 筆劃이 변이된 이체자 등 두 가지로 구별 된다. 이체자와 正字는 상호간에 생존경쟁을 전개하며 언제든지 이체가가 正字로 바뀔 수도 있고, 정자가 사용이 적어져 영향력이 이체자보다 약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자형이 訛俗化되어 거의 正字로 통용할 수 없는 자형도 있다.

4. 이체자를 통해 본 간재 문집의 판본 연구

본 연구는 간재집 3종 판본의 이체자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이체자를 통해 3종 판본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더 주력하였다.

상기의 이체자 사례표에서 보여주는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의 판본에서만 전용으로 사용되는 글자가 있다. 바로 화도수정본의 ‘㉫’·‘㉬’자이다. 다른 두 종의 판본에서는 ‘㉫’·‘㉬’자는 사용되지 않는다. 진주본의 ‘㉭’·‘㉮’·‘㉯’자도 그러하다. 용동본의 ‘㉰’·‘㉱’자도 그러하다.

둘째, 필사본은 글자의 간화를 목적으로 이체자를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활자본인 진주본은 활자로 만들어 놓은 글자를 반복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글자의 간화를 위한 이체자의 사례는 매우 적다. 이례적으로 ‘爾’대신 ‘尔’이 쓰이거나 ‘亂’대신 ‘乱’이 쓰이기도 하지만 그 사례는 매우 적다. 향후 일치 빈도와 확률을 계산하여 근거를 보강하겠다. 이러한 보강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용과는 다른 현상이 존재한다면 이에는 부여되는 의미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추측컨대, 저본을 그대로 따라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례적인 이체자 사용을 간과할 수 없게 된다. 화도수정본은 간화를 목적으로 사용된 이체자의 사례가 많다. ‘处’·‘関’·‘艸’·‘芦’·‘洒’·‘係’·‘尔’자 등이 그러하다. 이는 모두 획수가 많은 자의 간편성을 위한 이체자의 용례로 보인다.

셋째, 화도수정본과 진주본이 동일한 글자의 사용한 확률과, 용동본과 진주본이 동일한 글자를 사용한 확률, 화도수정본과 용동본이 동일한 글자를 사용한 확률을 비교해 보았다. 이러한 시도는 3종 판본 간의 상호 관계 및 전승 계통을 규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체자는 문헌의 필사, 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자 변이의 흔적으로, 판본의 지역적,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이체자 출현 양상을 정리하고 유형화함으로써, 이체자의 통시적 변화 및 판본 간의 유사성과 차이를 비교 분석해 보면 판본 계통의 분류와 상화 영향 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동일한 글자에 여러 가지 이체가 존재하거나 이체자와 정자가 동시에 존재하기도 하는 현상으로 인해, 문자의 유변을 파악할 수 있다. ‘它’·‘佗’·‘他’의 조합은 3인칭 대명사의 변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화도수정본은 필사본이라는 특성 상, 3인칭 대명사의 이체자 쓰임이 가장 많이 혼재되어 있다. 그에 반해 용동본은 여기에서 ‘佗’의 쓰임이 주를 이룬다. 3종 판본에서 3인칭 대명사의 용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3인칭 대명사 용례

순번	화도수정본	용동본	진주본
1	它	佗	他
2	他	佗	他
3	它	他	它
4	他	佗	它
5	他	佗	他
6	它	佗	他
7	他	佗	他
8	它	佗	他
9	他	佗	他

다섯째, 화도수정본은 필사본이라는 성격을 고려해, 목판인쇄본인 용동본과 연활자인쇄본 진

주본 이 동일한 저본을 가졌을 것이라고 하나, 이러한 주장에 비해 용동본과 진주본의 사용 글자가 서로 다른 경우도 매우 많다.

(표-4) 용동본과 진주본의 이체자 사례

순번	용동본	진주본	비고	순번	용동본	진주본	비고
1	歎	嘆		51	본문없음	乘	
2	睹	覩		52	본문없음	險	
3	佗	他		53	본문없음	怪	
4	胷	胸		54	본문없음	歎	
5	牆	牆		55	본문없음	處	
6	喻	본문없음		56	본문없음	解	
7	卻	却		57	본문없음	證	
8	云	言		58	顛	顛	
9	喻	諭		59	悖	悖	
10	惟	惟	1 동일	60	佗	它	
11	諭	喻		61	決	決	19 동일
12	并	並		62	妙	妙	20 동일
13	埃	俟		63	詫	詫	21 동일
14	盛	誠		64	鬪	鬪	22 동일
15	略	畧		65	閭	閭	23 동일
16	註	본문없음		66	奈	奈	
17	腳	脚		67	媿	愧	24 동일
18	羣	羣	2 동일	68	準	準	25 동일
19	奈	本문없음		69	兒	貌	
20	寘	置		70	補	補	26 동일
21	着	著		71	佗	他	
22	曹	曹	3 동일	72	關	關	27 동일
23	疏	疏	4 동일	73	旨	指	
24	爾	尔		74	奈	奈	28 동일
25	輩	輩	5 동일	75	註	注	
26	懈	懈	6 동일	76	回	回	29 동일
27	忖	忖	7 동일	77	脚	脚	30 동일
28	決	決		78	臺	臺	31 동일
29	佗	他		79	救	救	32 동일
30	嗽	嗽	8 동일	80	著	着	
31	寘	置		81	參	參	33 동일
32	靜	靜	9 동일	82	併	並	
33	源	原		83	鳩	缺	
34	喻	喻	10 동일	84	佗	他	
35	峯	峰		85	佗	他	
36	湖	湖	11 동일	86	儻	儻	
37	卽	即		87	闊	濶	
38	卻	却		88	歸	歸	34 동일
39	冰	冰	12 동일	89	扞	創	
40	他	他	13 동일	90	橫	橫	35 동일
41	他	它		91	間	間	
42	唯	唯	14동일	92	爭	爭	36 동일
43	爭	爭	15동일	93	復	復	37 동일
44	壻	壻	16동일	94	陳	陳	38 동일
45	辨	辨	17동일	95	靜	靜	39 동일
46	實	實	18동일	96	疎	疎	40 동일
47	본문없음	絕		97	喻	喻	41 동일
48	兩	兩		98	湖	湖	42 동일
49	본문없음	往		99	本문없음	峰	
50	本문없음	懇		100	悶	悶	

(표-5) 화도수정본과 용동본의 이체자 사례

순번	화도수정본	용동본	비고	순번	화도수정본	용동본	비고
1		歎		51	乘		
2	靚	睹		52	險		
3	它	佗		53	恠		
4	胸	胷		54	黻		
5	牆	牆		55	处		
6	諭	諭		56	解		
7	却	卻		57	澄		
8		云		58	顛	顛	
9		喻		59	悖	諄	
10	唯	惟		60	他	佗	
11	諭	諭		61	決	決	
12		并		62	妙	妙	
13	俟	埃		63	詭	託	
14		盛		64	鬪	鬪	
15		略		65	閑	閑	
16	注	註		66	奈	柰	
17	脚	腳		67	愧	媿	
18	群	羣		68	準	準	
19	奈	柰		69	貌	兒	
20	置	寘		70	輔	補	
21	著	着		71	他	佗	
22	曹	曹		72	閑	關	
23	疏	疏		73	指	旨	
24	尔	爾		74	柰	奈	
25	輩	輩		75	注	註	
26	解	懈		76	回	回	
27	付	付		77	腳	脚	
28	決	決		78	埕	臺	
29	他	佗		79	求	救	
30	磬	嗽		80	着	著	
31	置	寘		81	叅	參	
32	静	靜		82	并	併	
33	原	源		83	鳩	鳩	
34	諭	諭		84	它	佗	
35	峰	峯		85	他	佗	
36	胡	湖		86	個	個	
37	卽	卽		87	濶	闊	
38	却	卻		88	販	歸	
39	冰	冰		89	創	刼	
40	佗	他		90	橫	橫	
41	它	他		91	間	間	
42	惟	唯		92	争	爭	
43	争	爭		93	覆	復	
44	婿	壻		94	陳	陳	
45	辯	辨		95	靜	靜	
46	案	實		96	疎	疎	
47	絶			97	諭	諭	
48	兩	兩		98	胡	湖	
49	往			99	峰		
50	忌			100	憫	悶	

(표-6) 화도수정본과 진주본의 이체자 사례

순번	화도수정본	진주본	비고	순번	화도수정본	진주본	비고
1		嘆		51	乘	乘	
2	靚	靚	1 동일	52	險	險	
3	它	他		53	恠	怪	

4	胸	胸	2 동일	54	敦	敦	
5	牆	牆	3 동일	55	处	處	
6	諭			56	解	解	
7	却	却	4 동일	57	澄	證	
8		言		58	顛	顛	18 동일
9		諭		59	悖	悖	19 동일
10	唯	惟		60	他	它	
11	喻	喻	5 동일	61	決	決	
12		並		62	妙	妙	
13	俟	俟	6 동일	63	詭	託	
14		誠		64	闕	闕	
15		畧		65	閑	閑	
16	注			66	奈	奈	20 동일
17	脚	脚	7 동일	67	愧	愧	21 동일
18	群	羣		68	準	準	
19	奈			69	貌	貌	22 동일
20	置	置	8 동일	70	輔	補	
21	著	著	9 동일	71	他	他	23 동일
22	曹	曹		72	閑	關	
23	疏	疏		73	指	指	24 동일
24	尒	尒	10 동일	74	柰	奈	
25	董	董		75	注	注	25 동일
26	解	懈		76	回	回	
27	忖	忖		77	腳	脚	
28	決	決	11 동일	78	埧	臺	
29	他	他	12 동일	79	求	救	
30	整	嗽		80	着	着	26 동일
31	置	置	13 동일	81	叅	參	
32	靜	靜		82	并	並	
33	原	原	14 동일	83	鳩	缺	
34	諭	喻		84	它	他	
35	峰	峰	15 동일	85	他	他	27 동일
36	胡	湖		86	僞	僞	28 동일
37	卽	即		87	濶	濶	29 동일
38	却	却	16 동일	88	飯	歸	
39	冰	冰		89	創	創	30 동일
40	佗	他		90	橫	橫	
41	它	它	17 동일	91	間	閒	
42	惟	唯		92	爭	爭	
43	爭	爭		93	覆	復	
44	婿	壻		94	陳	陳	
45	辯	辨		95	靜	靜	
46	案	實		96	疎	疎	
47	絶	絕		97	諭	喻	
48	兩	兩		98	胡	湖	
49	往	往		99	峰	峰	31 동일
50	懇	懇		100	憫	憫	32 동일

상기의 비교표에서 보이듯이, 화도수정본과 용동본은 100%의 이체율을 보여준다. 용동본과 진주본은 48%, 화도수정본과 진주본은 68%의 이체율을 보인다. 이로써, 진주본은 화도수정본과 用字의 유사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5. 나가는 글

본 연구는 이체자(異體字)의 양상 분석을 통해 고전 문헌의 판본(版本) 간 차이를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본 간의 상호 관계 및 전승 계통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간재 문집의

3종 판본을 대상으로 이체자 출현 양상을 정리하고 유형화함으로써, 이체자의 통시적 변화 및 판본 간 유사성과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필사본은 글자의 간화를 목적으로 이체자를 쓰는 경우가 많다. 화도수정본은 필사본으로 간화를 목적으로 사용된 이체자의 사례가 많다. ‘处’·‘関’·‘艸’·‘芦’·‘洒’·‘係’·‘余’자 등이 그러하다. 이는 모두 획수가 많은 자의 간편성을 위한 이체자의 용례로 보인다.

넷째, 동일한 글자에 여러 가지 이체가 존재하거나 이체자와 정자가 동시에 존재하기도 하는 현상으로 인해, 문자의 유변을 파악할 수 있다. ‘它’·‘佗’·‘他’의 조합은 3인칭 대명사의 변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화도수정본은 필사본이라는 특성 상, 3인칭 대명사의 이체자 쓰임이 가장 많이 혼재되어 있다. 그에 반해 용동본은 여기에서 ‘佗’의 쓰임이 주를 이룬다.